

## “올해 설 명절 선물은 ‘천년이음 나주배’로”

시, 공급상황 점검…유통과정 애로사항 청취  
품질 관리·소비자 신뢰 강화…위상 공고화도

나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명절 대표 과일로 자리매김한 나주배의 안정적인 출하와 품질 관리를 위해 선과장 현장 점검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농산물거점산지 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설 명절 성수기 나주배 출하 물량의 준비 상황과 선과 작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설 대목을 맞아 소비자들에 게 품질 좋은 나주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선과 및 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나주

시지부장, 세지농협조합장,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대표를 비롯해 나주시 농축산식품국장, 배원예유통과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했다.

윤병태 시장은 관계자들과의 환담 후 선과장을 들러보며 설 명절 출하 물량 규모와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기간 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근로자 안전과 효율적인 선과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와 지원을 당부했다.

올해 설 명절 나주배 선과 작업량은 지난해 1541t 대비 31% 증가한 물량으로 명절 소비 수요 확대에 대비해 충분한 출하 물량이 확보된 상태다.

시는 선과, 포장, 물류 전 과정에서 품질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최근 농산물거점산지 유통센터(APC)를 방문해 나주배 선과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리와 안전성을 한층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명절 대표 과일로서 나주배의 위상을 더욱 고고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천년고도 나주의 역사와 전통을

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주배는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의 땀과 정성이 더해진 전국적인 명절 대표 과일”이라며 “설 명절 기간에

시민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나주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광양 ‘달빛365’ 관광활성화 사업 본격화

광양시는 삼화섬·해비치로 광장 일원을 연중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달빛365’ 관광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삼화섬·해비치로 광장은 이순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도심 속 수변공간으로 바다와 휴양의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징이다. 아자수와 넓은 잔디, 현무암 담장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며, 무빙리아트와 미디어 파사드 등 경관조명이 더해져 빛의 파노라마를 구현하고 아간에는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 시, 27일 삼화섬·해비치로 광장 일원 개장

‘달빛365’는 삼화섬·해비치로 광장의 은은한 애경과 감성을 상징하는 ‘달빛’과 연중 운영을 뜻하는 ‘365’를 결합한 명칭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처럼 찾을 수 있는 감성 관광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오는 27일 삼화섬·해비치로 광장 ‘달빛365’를 개장하고 약 3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푸드 트럭·플리마켓·버스킹이 어우러진

‘달빛365 불금day’를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푸드트럭과 플리마켓 운영자는 2월 중 공개 모집하며,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 입장을 지원해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시는 감성 조명과 버스킹이 어우러진

‘낭만 산책로’를 중심으로 먹거리와 볼거리로 결합한 체류형 관광공간을 조성

해, ‘달빛365’를 광양을 대표하는 연중 야간 관광 콘텐츠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달빛365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일상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감성 관광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

범운영을 통해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먹거리·문화·야경이 어우러진 체류형 콘텐츠 확충으로 광양의 야간 관광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곡성, 노인등록 통계 구축  
노인정책 실효성 기반 강화

곡성군이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65세 이상 인구(2026년 1월 기준)는 1만1303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41.21%를 차지하고 있다.

돌봄, 일자리, 건강, 주거 등 노인 관련 정책 수요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군은 고령화 현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특화 노인등록 통계를 구축한다. 이번 통계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중 작성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노인등록 통계를 향후 노인 정책 수립과 개선에 폭넓게 활용해 돌봄·건강·일자리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 장성, 18일까지 농특산물 ‘통 큰 세일’

장성몰 20% 할인…서울 등 판촉 행사도

장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군은 18일까지 공식 쇼핑몰인 ‘장성몰’을 통해 20% 할인 판매한다. 터줏대감 격인 사과, 배, 한돈 선물 세트 등을 3만~5만원대에 살 수 있다.

돌봄, 일자리, 건강, 주거 등 노인 관련 정책 수요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군은 고령화 현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특화 노인등록 통계를 구축한다. 이번 통계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중 작성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노인등록 통계를 향후 노인 정책 수립과 개선에 폭넓게 활용해 돌봄·건강·일자리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16일까지 판촉행사가 진행된다. 9월~11월에는 북포유통센터 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소비자들을 만난다.

앞선 4~5월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 양천구(5~6일), 송파구(10~11일), 도봉구(11~12일) 직거래장터에서도 장성산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할 예정이다.

김한종 군수는 “이번 설에는 청정 자연과 농부의 정성 어린 손길로 빛어낸 ‘장성 과일’로 풍요롭고 건강한 명절 상차림을 완성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이향근 기자 lhb6699@gwangnam.co.kr

### 목포해경, 설 연휴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목포해양경찰서가 설 연휴와 해양안전 특별관기간(3월 31일까지)에 따라 해양 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 기간 해양 이

리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경은 목포여객터미널과 신안 송공항, 남강 선착장, 암태파출소 등 연안과 파출소 26곳을 대상으로 연안 위험요소, 파출소 구조 장비 관리상태, 구조수색역의 현장 즉응태세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에는 ‘과승’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행위에 대해 예방 차원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목포=주용준 기자

### ‘달콤한 고구마소 듬뿍’ 해남꿀구마떡 출시

지역 대표 프리미엄 떡…해남미소 등서 판매

해남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해남고구마를 이용한 떡 브랜드인 ‘해남꿀구마떡’을 선보인다.

지난해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한가공상품으로, 소가 들어간 인절미 종류의 오avage이다. 잡쌀 반죽에 해남고구마를 듬뿍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다.

9월부터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인 해남미소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소비자는 6개월 1박스에 1만원으로, 설맞이 할인가로 1만 2000원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12~13일에는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시식 행사를 갖는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특화 가공상품 다양화를 위해 지난해 고구마꿀 순번떡, 고구마오avage, 고구마꿀떡 3종의 고구마떡을 개발했다.

앞으로 떡뿐만 아니라 고구마칩, 고구마 페이스트 활용 기공상품 개발도 확대해 지역 고구마 가공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특화

가공상품 다양화를 위해 지난해 고구마꿀 순번떡, 고구마오avage, 고구마꿀떡 3종의 고구마떡을 개발했다.

앞으로 떡뿐만 아니라 고구마칩, 고구마 페이스트 활용 기공상품 개발도 확대해 지역 고구마 가공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특화

가공상품 다양화를 위해 지난해 고구마꿀 순번떡, 고구마오avage, 고구마꿀떡 3종의 고구마떡을 개발했다.

나주자 고서면장은 “마을공동빨래방이 고서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적십자봉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담양군은 마을공동빨래방 지원사업을 비롯해 병원등행 및 뇌원환자 돌봄 사업, 청소년 영어문화교류사업, 아동청소년 미술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등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 완도, 6억6000만원 투입 슬레이트 처리

#### 160가구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완도군은 1급 밭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6억6000만원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118동), 취약계층 가구 지붕 계량(20동),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처리(22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원, 지붕 개량은 최대 500만원, 창고와 축사는 면적

자봉사회가 협력 운영하며, 시범운영 기

간을 거쳐 개선점을 보완 후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마을공동빨래방은 전남도와 담양군이 공동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대형 세탁이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이다.

고서면 고서면이 고향사랑기금 공모사업으로 설립한 마을공동빨래방이 문을 열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나주자 고서면장은 “마을공동빨래방이 고서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적십자봉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담양군은 마을공동빨래방 지원사업을 비롯해 병원등행 및 뇌원환자 돌봄 사업, 청소년 영어문화교류사업, 아동청소년 미술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등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기금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완도=김혜국 기자